

#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Gender Role)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Gender Role of the Middle Aged Woman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張 夏 慶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University*

*Instructor : Ha Kyung, Chang*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 徐 炳 淑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Prof. : Kyung Sook, Seo*

###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IV. 연구방법 및 절차

V. 결과 및 해석

VI.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paper has two purpose. The primary purpose is to investigate how the middle ages women of Korea describe their own masculinity, femininity and gender role identity. Secondary purpose is to find out, how the masculine and the feminine are related to socio demographic feature and physical symptom.

The questionnaire sheets of 327 use from middle aged woman of 39 years to 59 years old with their last child is more then 10 years old.

The summerized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

1) The overall tendency in gender role identity of middle aged women, the undifferentiated type(36.70%) was the most and have shown the androgynous type(30.58%) by the next.

2) The employed middle aged women inducated higer masculinity than the unemployed middle aged women, and felt the lesser physical symptoms conciousness. In case of occupation of husband is higer social status, the femininity was higer than others, and in the group has not daughter or shorter marital period, the femininity was higher.

### I. 서 론

성역할에 관한 연구들은 인간의 성특성을 ‘남성

지향가치특성(Masculine)’과 ‘여성지향가치특성(Feminine)’이라 불리우는 두가지 성별지향가치특

성으로 구분하고(장하경, 서병숙, 1991) 이러한 성

특성은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어느 한쪽만이 두드러지게 발휘되기도 하며 또 억제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남성지향가치특성'과 '여성지향가치특성'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통합되어있는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을 '양성성(Androgynous)'이라하고 '남성지향가치특성' 또는 '여성지향가치특성'중 어느 한 쪽 특성만이 두드러지는 성역할정체감유형을 '남성성(Masculinity)' 또는 '여성성(Femininity)'이라 표현하며, '남성지향가치특성'과 '여성지향가치특성'중 어느 한 쪽도 잘 표현되지 않은 특성을 '미분화적(Undifferentiated)'이라 표현하고 있다. 최근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역할정체감 유형중 인간의 적응과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을 '양성성'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중년기의 성역할정체감을 연구한 Jung(1982)은 중년기 남녀는 특정 문화 속에서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남성지향가치특성과 여성지향가치특성의 어느 한쪽 부분만 과도하게 강조되고 억제되다가 인생의 결정적 전환기인 중년기에 이르게 되면 성역할의 재구분이 야기되어 양성성(androgyny)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 그러한 양성성은 개인의 자아성장과 성숙한 삶의 표현에 가장 긍정적 형태로 기능한다고 한다. Jung(1972)은 심리적 양성성을 중년기의 발달과제로 삼았으며 이에 도달하는 것은 폐경과 함께 자연스러운 변용과정이므로 여성은 중년기에 출현하는 심리적 양성성을 적극적으로 발현시켜 자기완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의 중년기 여성들은 여성다움만을 주로 강조하고 남성다움은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였으며 더불어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에 비해 열등하거나 낮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 속에 생활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이 중년기에 접어들어 억압당한 남성다움과 약화된 여성다움을 새로이 재정립하여 성숙한 표현형태로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중년기에 처해있는 여성들은 어떠한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년기 단계의 가정환경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중년기 여성의 대표적인 특성인 생리현상의 변화 및 노후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인지도를 중심으로 검증해보았다.

## II. 이론적 배경

### 1. 性役割正體感

'성역할(gender role)'이란 '생물학적 차이에 기초해서 사회로부터 기대되고 있는 일련의 성격특성'(柏木惠子, 1973)이다. 'gender'는 본래 'sex'를 기반으로 나아가서 심리, 사회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발달적 전체성을 가리키고, 결국 성을 총괄하며 대표하는 용어가 되어 있다(Stoller, 1968). Sex는 출생 전에 분화하는 생물학적인 선천적인 성을 말하며, 성기관, 생식의 구조등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gender는 출생 후에 분화하는 심리사회적인 이른바 후천적인 성을 말하며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Mannet & Duch, 1967). 인간에게 있어 동물과는 다르게 중요한 것은 gender로서 개인의 성-정체감(gender-identity)은 sex와 gender의 두가지 성이 통합되면서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사회화된 성별 존재로서의 개성의 통일이나 일관성, 지속성'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박아청, 1990, 259).

성역할이론에서는 성역할을 인간이 창출해내는 문화의 하나로써 간주하고 인간사회의 문화적 규범으로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성역할정체감은 개인적 정체감의 한 측면으로서 개인이 속한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며 개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나타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그 정도와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장하경, 서병숙, 1991, 170). 성역할정체감은 일반적으로 성격 전체와 관련된 것으로 성역할정체감의 장애는 성격장애와 상관이 있으며, 또 '자아실현'이나 '개성화'와 같은 인격적 성장

속에서 이 성역할정체감의 생성과정에 깊게 빠져 들고 있는 것이다(박아청, 1990).

1974년 Bem이 상황에 따라 남성역할과 여성역할 모두의 역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을 '양성성'이라 하여 개인의 적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양성성이 곧 적응력'이라는 이론을 등장시켰다. 그 후, 양성성 이론을 제시한 연구자들은 여성지향가치특성이나 남성지향가치특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녀의 성역할은 변화하며 따라서 현대는 유능한 성인일 수록 그 양자를 모두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성역할 발달의 목표는 性(sex)에 관계없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간의 균형을 이루는 양성성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양성성 정체감의 실현이야말로 심리적으로 왜곡되고 억압되지 않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자아실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 양성성정체감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은 '남성성요인(masculinity component)'이 심리적 적응에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Whitley(1983)은 남성성요인이 심리적으로 적응과 밀접히 관계되며 '여성성요인(femininity component)'은 심리적 적응에는 관계하지 못한다는 '남성성 모형(masculinity model)'을 제시하였으며 Yager과 Baker도 '남성성 우월효과(Masculinity supermacy effect)'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여성지향가치특성과는 관계없이 남성지향가치특성만이 개인의 적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Tayer와 Hall 그리고 Feather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우울증을 연구한 장하경, 서병숙(1992)의 연구에서는 각 성별지향가치특성을 요인분석하여 여성지향가치특성중 '친화성'요인과 남성지향가치특성중 '적극성'과 같은 요인은 중년기 여성의 우울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지향가치특성중 '감성성'요인은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밝혀, 양성성정체감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여성지향가치특성과 남성지향가치특성의 각 요인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적응력이 다르다는 것을 제

시하고 있다.

## 2. 中年期 女性과 性役割正體感

중년기에 관한 구체적 개념을 최초로 발전시킨 Jung학파는 인간은 소위 중년기에 이르는 40세 경부터 정신변환이 있게되어 억압되고 잊혀진 자기의 모든 측면들이 무의식적으로 촉발된다(1933, 17-18, 62-63)고 하고 이것은 '개성화' 및 '자아 실현'의 길로 가는 상태로 중년기의 발달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Jacobi, 1965, 86-87). '개성화'는 진정한 개성을 실현하는 뜻으로 그 사람 자신의 전부가 된다는 뜻이며 이것은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sup>1)</sup>와 같은 남녀의 성별지향가치특성의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중년기에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녀양성성이 대화를 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Gutman(1976)의 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젊었을 때는 능동적인 지배(master)라고 하는 경향이었지만, 중년에 들어서서는 좀 더 수동적인 순응(accomodation)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한편, Livson(1976, 1981, 1983)은 중년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행하는 기간동안에는 남성(父)은 전형적인 남성성, 여성(母)은 전형적인 여성성을 나타내다가, 여성의 경우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거나 혹은 '빈 보금자리 시기'가 되면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남성적 특성을 부가하여 양성성을 띄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욱 건강한 적응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관계속에서 살고 있는 양성적인 사람은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역할중 한가지 역할만을 택해야 된다는 점에서 좌절을 겪을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만족감은 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중년기이후

1) Jung(1965)은 중년기 이후에 출현하는 남성의 무의식적인 女性的인 側面을 anima라 표현하고, 여성의 무의식적인 남성적인 측면을 animus라 표현하고 女性的인 側面으로 양육, 감정, 예술 및 자연과의 합일동에 대한 것을 지적하였으며 사교 영웅적인 주장, 자연의 정복등은 男性的인 側面에 속하는 것이라 하였다(Ann mankowitz, 1984).

특히 자녀의 성장 독립이후 양성성(androgyny)으로 전환하여 남성은 보친성, 유친성이 보다 증가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지배성, 공격성, 자기중심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Cook, E.P., 1985).

### III.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중년기 여성의 성별지향가치특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특성 및 심리적증상인 지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각 특성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특성 및 심리적 증상인 지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각 특성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의 3개 대학교와 2개 전문학교 및 3개 고등학교와 2개 중학교의 학생의 어머니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800부를 배부한 중에 562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중년기 여성<sup>2)</sup>으로서 질문사항에 빠짐없이 기입한 327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부분과 성역할정체감척도, 신체적 증상인지척도 및 생리현상에 관한 질문으로 되어 있다. 성역할정체감척도는 장하경, 서병숙(1991)의 KGRI(Korean Gender Role Inventory : KGRI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KGRI측정도구는 Likert식 7점 척도로 남성지향가치특성 15문항, 여성지향가치특성 15문항<sup>3)</sup>으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음(1점)'에서부터 '항상 그러함(7점)'중 선택한 것을 분석하였다. 각 응답자의 남성지향가치특성의 점수는 15개문항 응답의 평균이고, 여성지향가치특성의 점수는 15개문항 응답의 평균으로 계산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신체적 특성은 생리현상의 폐경, 불규칙, 규칙형상으로 측정하였고, 심리적증상인지도에 관한 척도는 중년기에 발생하는 노후와 관련된 증상 대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8가지 문항으로(장하경, 서병숙, 1992, 267).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 '늘 그렇다(3점)'의 4점척도로 표시한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와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각각의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F검증, t-검증, Duncan-Test, 중분류분석(MCA), 공변량분석(ANCOVA), 교차분석(crosstabs)을 하였다.

### V. 결과 및 해석

#### 1.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의 전반적인 경향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분포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가를 파악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전체 응답자의 각 성별지향가치특성의 점수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남성지향가치특성, 여성지향가치특성의

2) 본 논문에서는 중년기 여성으로 규정하는 여성의 연령을 막내자녀 연령이 만 10세이상으로 만 39세이상부터 만 59세까지로 정의하였다(장하경, 서병숙, 1992, 264-265).

3) 각각의 성별지향가치특성을 요인분석하여 여성지향가치특성은 '가정성', '친화성', '내향성', '감성성'으로 명명되었으며, 남성지향가치특성은 '적극성', '주도성', '책임성', '활동성'의 각각 4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장하경, 서병숙, 1992, 272-273).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327

변 인	분 포	N	%	변 인	분 포	N	%
연 령	39세-44세	156	47.7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64	19.3
	45세-54세	152	46.5		100-200 미만	148	45.4
	55세 이상	19	5.8		200-300 미만	86	26.4
아들수	0명	56	17.1		300만원 이상	29	0.08
	1명	191	58.4	종 교	없 다	75	22.9
	2명	62	19.0		기 독 교	109	33.3
	3명 이상	18	5.5		천 주 교	52	15.9
0명		24	7.3		불 교	85	26.0
1명		115	35.2	기타종교	6	1.8	
딸 수	2명	105	32.1	교육수준	국졸 이하	30	9.2
	3명	55	16.5		중졸 이하	76	23.2
	4명	22	6.7		고졸 이하	141	43.1
	5명	4	1.2		대졸 이상	80	24.4
	6명	1	0.3	남편의 직업	은퇴·기타	48	14.6
	7명 이상	1	0.3		노무·비숙련·자영업	35	10.7
		10-16세	29		8.7	상공업	78
큰자녀 연 령	17-20세	135	41.2	사무직	60	18.9	
	21-26세	112	34.2	전문직·관리직	6	32.4	
	27-34세	28	8.5	본인의 직업	전업주부	199	60.8
	35세 이상	23	6.7		노무·자영	84	25.7
10-13세		74	22.6		상공업	12	3.7
막내자녀 연 령	14-16세	94	28.7	사무직	32	0.9	
	17-20세	116	35.4	가족형태	핵 가족	262	80.1
	21-25세	37	11.3		확대 가족	65	19.9
	26세 이상	6	1.8	생리현상	규 칙	184	56.3
결 혼 지속 년수	14년 이하	7	1.8		불규칙	79	24.2
	15-19년	105	32.1		폐 경	64	19.5
	20-24년	126	38.5				
	25년 이상	90	27.5				

점수가 이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가려서 중앙치 분리법(median-split method)(Spence, Helmreich & Stapp, 1975)으로 응답자들은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서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 표 2와 같이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분포는 미분화 집단(36.7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양성성 집단(30.58%), 여성성 집단(18.35%), 남성성 집단(14.37%)의 순으로 나타나 중년기 여성의 다수가 兩性의 특성을 모두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유형 분포

여성가치지향특성(중앙치=4.80)

	중앙치 이상	중앙치 이하
중앙치 이상	양성성 집단 N=100 %=30.58	남성성 집단 N=47 %=14.37%
	여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
남성지향 가치특성 (중앙치=4.66)	중앙치 이하	
	N=60 %=18.35	N=120 %=36.70%

CASE=327

따라서 가장 심리적으로 성숙되어 있어야 할 중년기에 여성들은 유교적인 정신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性(sex)과 반대되는 남성지향가치특성은 수용하지 못하고,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지향가치특성은 억압한 채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중년기 여성의 성별지향가치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중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아들의 수, 딸의 수, 막내자녀연령, 결혼지속년수, 취업유무를 독립변인으로 중년기 여성의 성별지향가치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

고자 하였다. 남성지향적가치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F검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취업주부의 남성지향가치특성은(M=4.65) 전업주부(M=4.41)보다 높게 나타났다(t=-.58, p<.05). 중년기 여성의 취업 경험은 가정내에 서만의 역할보다 남성지향가치특성을 높여주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4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여성지향가치특성을 F검증과 t-검증을 한 결과이다. 중년기 여성의 여성지향가치특성은 남편의 직업(F=2.14, P<.05)과, 딸의 수(F=2.22, p<.05), 막내자녀연령(F=4.10, p<.01), 결혼지속년수(F=4.64, p<.05) 변인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검증되었다. 이와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남성지향가치특성의 차이 총평균=4.50

변 인	구 분	N	M	F비	t값
교육 수준	국졸 이하	30	4.35	.94	
	중졸 이하	76	4.44		
	고졸 이하	141	4.47		
	전문대 이상	79	4.67		
남편 직업	은퇴·기타	43	4.26	.88	
	노무·비숙련·자영	35	4.38		
	상공업	78	4.54		
	사무직	60	4.61		
	자본가, 전문직	106	4.54		
아들 수	0명	56	4.60	.16	
	1명	191	4.49		
	2명	62	4.50		
	3명 이상	18	4.47		
딸 수	0명	24	4.54	1.22	
	1명	115	4.37		
	2명	105	4.64		
	3명 이상	83	4.52		
막내 자녀 연령	10-13세	74	4.47	1.04	
	14-16세	94	4.59		
	17-20세	116	4.39		
	21세 이상	43	4.70		
결혼 지속 년수	19년 이하	111	4.49	.46	
	20-24년	126	4.58		
	25년 이상	90	4.44		
주부의 취업유무	전업 주부	199	4.41		- .58*
	취업 주부	128	4.65		

\*P<.05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들의 하위변인들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Duncan-test를 실시한 결과 여성지향가치 특성점수는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두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남편의 직업이 자본가이거나 고위관리직인 중년기 여성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가치지향특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M=4.90). 즉, 남편의 직업이 사회적지위 및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은 여성지향가치특성을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지향가치특성은 아들의 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딸의 수에 영향을 받아, 딸이 없는 중년기 여성집단이 딸이 있는 집단들보다 여성지향가치특성이 높게 나타나(M=5.13) 딸이 없는

중년기 여성은 딸이 있는 여성보다 여성적인 특성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막내자녀가 17~20세 즉,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년기 여성의 여성지향가치특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M=4.54) 막내자녀의 고등학교 시기의 여성의 역할이 여성지향가치특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는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여성지향가치특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지속년수가 20년 이상인 집단들은 여성지향가치특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여성지향가치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변인들에 대하여 타 변인의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성지향가치 특성의 차이

총평균=4.77

변 인	구 분	N	평 균	F비	t값	Duncan's
교육 수준	국졸 이하	30	4.51	1.63		
	중졸 이하	76	4.66			
	고졸 이하	141	4.83			
	전문대 이상	79	4.85			
남편 직업	은퇴·기타	43	4.46	2.14*		L
	노무·비숙련·자영	35	4.61			L
	상공업	78	4.79			L
	사무직	60	4.79			L
	전문직·관리직	106	4.90			H
아들 수	0명	56	4.92	1.31		
	1명	191	4.69			
	2명	62	4.88			
	3명이상	18	4.72			
딸 수	0명	24	5.13	2.22*		H
	1명	115	4.64			L
	2명	105	4.78			L
	3명이상	83	4.84			L
막내 자녀 연령	10-13세	74	4.92	4.10**		H
	14-16세	94	4.88			H
	17-20세	116	4.54			L
	21세 이상	43	4.90			H
결혼 지속 년수	19년 이하	111	4.94	4.65*		H
	20-24년	126	4.75			L
	25년이상	90	4.56			L
취업유무	전업 주부	119	4.75	-	-2.00	
	취업 주부	128	4.81			

H : High L : Low \*P<.05 \*\*P<.01

통제시 독립적인 영향력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분류분석(MCA)을 실시하였다(표 5). 여성지향 가치특성을 의미있게 설명해 준 변인들은 다른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F=2.84, P<.001$ ).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딸의 수와 결혼지속년수는 각각 설명력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막내자녀 연령은 감소하였다. 여성지향가치특성에 대한 남편직업의 설명력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나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나 변화되지 않았다. 베타 값을 기준으로 타변인 통제후의 각 변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살펴보면, 타변인 통제전에는 막내자녀연령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나 타변인 통제 후에는 결혼지속년수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막내자녀연령의 설명력이 되었다. 이상의 네 변인 즉, 남편의 직업, 딸의 수, 막내자녀연령의 결혼지속년수의 설명력은 .12로 중년기 여성의 여성지향

가치특성의 전체분산 중 12%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생리현상 및 신체적증상인지도와의 관계

각각의 성별지향가치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신체적 특성 중 객관적 특성인 생리현상과 주관적 특성인 신체적증상인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남성지향가치특성은 생리현상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신체적증상인지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것이 나타났다( $F=2.935 P<.05$ ). 회귀계수는 -.19로 중년기의 신체적 증상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남성지향가치특성 점수는 낮아지고 있다(표 6). 여성지향가치특성은 생리현상과 신체적증상인지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3.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의 관계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종교, 교육

표 5. 여성지향가치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총평균=4.77

변인	N	통제전/Eta 편 차	통제후/Beta 편 차	F	
남편 직업	은퇴·기타	43	-.31	-.31	2.06*
	노무·비숙련·자영	35	-.16	-.13	
	상공업	78	.03	.03	
	사무직	60	.03	.03	
	전문직·관리직	106	.14	.14	
			.16	.16	
딸 수	0명	24	.37	.38	3.01*
	1명	115	-.13	-.16	
	2명	105	.00	-.01	
	3명 이상	83	.07	.13	
			.14	.17	
막내 자녀 연령	10-13세	74	.16	-.02	3.59*
	14-16세	94	.11	.05	
	17-20세	116	-.23	-.16	
	21세 이상	43	.12	.38	
			.19	.18	
결혼 지속 년수	19년 이하	111	.18	.25	3.46*
	20-24년	126	-.01	.04	
	25년 이상	90	-.22	-.38	
			.17	.27	
$R^2$		.12			

\* $p<.05(F=2.84 P<.001)$



수준, 남편의 직업종류, 취업유무, 아들의 수, 딸의 수 및 가족구성유형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중년기 초기, 중기, 후기와 같은 연령범위( $P < .05$ )에서와, 막내 자녀연령( $p < .05$ ), 결혼지속년수( $p < .05$ ), 월평균 소득( $p < .05$ )에 따라서 차이가 검증되었다(표 8).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남성성 정체감 유형집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여성성 정체감 유형집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55세이상에서는 여성성 유형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중년기 중반이라 할 수 있는 45세부터 55세사이에는 양성성 유형 집단(34.4%)과 미분화적 유형 집단(34.4%)으로 나뉘고 있다.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살펴볼 때, 자녀나이가 어릴수록 남성성 유형이 적으며 막내자녀가 21세 이상에서는 양성성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40.5%). 막내자녀 연령이 고등학교인 시기에서는 양성성정체감 유형이 가장 적게 나타나며(23.3%), 반면에 미분화적 정체감 유형집단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41.4%).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양성성정체감 유형집단은 증가하여, 월평균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주부집단에서는 양성성 정체감 집단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남성성 정체감 유형집단은 소득이 100원에서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미분화적 정체감 집단은 100만원 미만 가정의 주부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성역할정체감과 생리현상 및 신체적증상인 지도와 관계

생리현상이 규칙적인 집단에서는 남성성 정체감 유형 집단이 현저한 숫자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불규칙적인 집단에서는 미분화적 정체감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폐경인 집단에서는 양성성 정체감 유형과 미분화적 정체감 유형이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9).

중년기 여성이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기 위해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표 10). 각 평균점수들은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정체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표 6. 남성이향가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특성 총평균=4.50

분석방법	변 인		N	통제전/Eta 편 차		통제후/Beta 편 차	F
주요인	생리현상	규 칙	184	-.00	-.01		
		불규칙	79	-.07	-.05		
		폐 경	64	-.09	-.10		
				.05	.05		.347
Covariate	신체적 증상		327		-.19		2.928*
	R <sup>2</sup>				.01		

Covariate분석의 Beta값은 회귀계수임 \* $p < .05$

표 7. 여성이향가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특성 총평균=4.77

분석방법	변 인		N	통제전/Eta 편 차		통제후/Beta 편 차	F
주요인	생리현상	규 칙	184	.03	.03		
		불규칙	79	-.12	-.11		
		폐 경	60	.05	.05		
				.07	.07		.735
Covariate	신체적 증상		327		-.086		.922
	R <sup>2</sup>				.01		

Covariate분석의 Beta값은 회귀계수임 \* $p < .05$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분화적 정체감 집단은 이들 세 집단과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이러한 결과는 미분화적 정체감 집단은 다른 세 유형 집단보다 신체적 증상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 VI.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의 결과의 요약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8. 中年期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차이

변인	유형 구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성	계	$\chi^2$
연령	39-44세	N	44	14	39	59	156	16.58*
		%	28.2	9.0	25.0	37.8	47.9	
	45-54세	N	52	27	20	52	151	
		%	34.4	17.9	13.2	34.4	46.3	
55세 이상	N	4	5	1	9	19		
	%	21.1	26.3	5.3	47.4	5.8		
계		N	100	46	60	120	326	
		%	30.7	14.1	18.4	36.8	100.0	
막내 자녀 연령	10-13세	N	23	4	22	25	74	18.60*
		%	31.1	5.4	29.7	33.8	22.7	
	14-16세	N	33	13	14	34	94	
		%	35.1	13.8	14.9	36.2	28.8	
17-20세	N	27	23	18	48	116		
	%	23.3	19.8	15.5	41.4	35.6		
21세 이상	N	17	6	6	13	42		
	%	40.5	14.3	14.3	31.0	12.9		
계		N	100	46	60	120	326	
		%	30.7	14.1	18.4	36.8	100.0	
결혼 지속 연수	19년 이하	N	37	11	27	36	111	16.27*
		%	33.3	9.9	24.3	32.4	34.0	
	20-24년	N	42	19	25	40	126	
		%	33.3	15.1	19.8	31.7	38.7	
25년 이상	N	21	16	8	44	89		
	%	23.6	18.0	9.0	49.4	27.3		
계		N	100	46	60	120	326	
		%	30.7	14.1	18.4	36.8	10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N	16	9	9	29	63	15.93*
		%	25.4	14.3	14.3	46.0	19.3	
	100-150 미만	N	42	26	36	44	148	
		%	28.4	17.6	24.3	29.7	45.4	
150-200 미만	N	30	8	10	38	86		
	%	34.9	9.3	11.6	44.2	26.4		
300만원 이상	N	12	3	5	9	29		
	%	41.4	10.3	17.2	31.0	8.9		
계		N	100	46	60	120	326	
		%	30.7	14.1	18.4	36.8	100.0	

\* $p < .05$

1) 조사대상자인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은 미분화정체감 유형(36.7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양성성정체감 유형(30.58%), 여성성정체감 유형(18.35%), 그리고 남성성정체감 유형(14.37%)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중년기 여성은 남성중심적 유교문화와 남녀평등이라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의 변화 사이에서 성역할의 혼돈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각 성별지향가치특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신체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남성지향가치특성이 높으며 이들은 중년기의 신체적 증상을 덜 느끼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중년기 여성 스스로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며 한편으로 중년기 여성의 건전하고 보람된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여가선용 방법과 교육적인 프로그램개발 등 사회적인 정책적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남편의 직업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결혼지속년수가 짧을 수록 여성지향가치특성이 높다. 딸이

없는 집단이 딸을 가진 집단보다 여성지향가치특성이 더 높다. 한편, 막내자녀의 연령은 여성지향가치특성에는 영향을 미쳐 막내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중년기 여성의 여성지향가치특성이 낮다. 중년기의 생리현상 및 신체적 증상인지도는 여성지향가치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반면에 신체적 자각 증상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 집단은 남성지향가치특성이 높다.

이로 인해 중년기 여성의 성별지향가치특성에는 중년기의 생리현상 및 신체적 증상인지도와 같은 신체적 특성보다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더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역할정체감과 중년기 여성의 특성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막내자녀연령, 결혼지속년수, 월평균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여 막내자녀연령과 결혼지속년수가 많을수록 여성성정체감 유형은 적게 나타난 반면에, 남성성정체감 유형은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월평균소득이 많은 집단일수록 양성성정체감을 나타냈고 월평균소득이 적어질수록 미분화적 정체감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정체

표 9. 생리현상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유형

변인	유형 구분	성역할정체감				계	$\chi^2$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성		
생리현상	규칙	N	65	16	31	72	15.32*
		%	35.3	8.7	16.8	39.1	
	불규칙	N	16	16	19	28	
		%	20.4	20.3	24.1	35.4	
	폐경	N	18	13	10	18	
		%	30.5	22.0	16.9	30.5	
	계	N	99	45	60	118	
		%	30.7	14.0	18.6	36.6	

\*P<.05

표 10.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중년기여성의 신체적증상인지

성역할정체감	신체적증상 인지			Duncan-test			
	N	M	SD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성
양성성	100	.87	.50	*			
남성성	47	1.02	.68				
여성성	60	1.02	.49				
미분화적	120	1.05	.59				
계	326	.99	.56				

\*P<.05 F=2.24

김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 종교유무, 취업유무와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는 막내자녀연령, 월평균소득등 가정환경적 특성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분화적 유형의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신체적 증상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다. 또한 생리현상이 규칙적이거나 폐경인 상태의 집단보다는 불규칙적으로 진행중인 집단이 미분화적 유형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성역할이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남성지향 가치특성과 여성지향가치특성의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성역할 이론에서는 양성성 성역할이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성역할 유형이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남성지향가치특성과 여성지향가치특성 모두를 개발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중년기의 발달과업은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을 내재하는 것으로 중년기에 이르러서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론이 있다. 한편, 변증법적 원리를 인간발달에 적용하고 있는 Jung(1965)과 Riegel(1977)은 개인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개인이 취한 행위 하나하나가 그 개인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바꿔놓으며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조건이 변화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개인의 심리적 작용이 변화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은 남녀성에 따라 부여하는 성별지향가치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개인적 특성을 발현시켜 성별지향가치특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은 중년기에 진정한 개성과 자아실현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중년기에 맞이하는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박아청(1984). 변모하는 한국 중년여성의생활스타일의 모색. 계간 성인 교육 2(2), 1984.
- 2) \_\_\_\_\_(1990).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정민사.
- 3) 장하경·서병숙(1991). 性役割 正體感 尺度 開發研究. 대한가정학회지 29(4), 167-179.
- 4) \_\_\_\_\_(1992). 중년기여성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263-276.

- 5) Ann Mankowitz.(1984) Change of Life : A *psychological Study of Drama and the menopause*.
- 6) Cook, E.P.(1985). *Psychological andregyny*. N.Y. : Pergamon Press, 1985.
- 7) Gutmann.(1976). Individual adaptation in the middle years : Developmental issues in the masculine mid-life crisis. *Journal of Psychiatry* 9, 41-59.
- 8) Levinson.(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 Y. : Knopf.
- 9) Livson.(1976). Patterns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Middle Aged Women : A Longitudinal Study. *Interaction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 107-115.
- 10) \_\_\_\_\_(1988). *Being and becoming old*,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 11) Erickson, E.H.(1950). *Childhood and society*, W.W. norton & Company Inc, New York, 231.
- 12) Feather, N.T.(1985). Masculinity, femininty, self-esteem, and subclinical depression. *Sex Roles*, 12, 491-500. 용의 심리학, 성문각.
- 13) Galloway, K.(1975). The Change of Life, *A.J.N.*, 75(6), 1006.
- 14) Jacobi, J.(1982). 1982 *The Psychology of C.G. Jung*, 역 : 이태동 : 칼.
- 15) Jung(1933). *Animus and anima*, 1-3, 11
- 16) \_\_\_\_\_(1965). Some Aspects of Mordern Psychotherapy.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CW 16, 53.
- 17) \_\_\_\_\_(1972). Medical and Psychotherapy.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CW 16, .par. 208.
- 18) Peplau, H.E.(1975). Midlife crisi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5, 1761-1765.
- 19) Prock, V.N.(1975). The mid-stage woman. *A.J.N.*, 75(6), 1019-1022.
- 20) Rubin.(1979). *Women of a Certain Age*, N.Y. : Harper and Row.
- 21) Sheehy.(1976). *Passage : Predictable Crisis of Adult Life*, N.Y. : Dutton.
- 22) Spence, J.T. Helmreich, R.& Stapp, J.(1975). Ratings of self and peers on sex role attributes and their relation to self-estwwm amd conceptions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Journal of Pera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29-39.
- 23) Stoller, R.J.(1964). A Contribution to the study

- of gend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5, 220-226.
- 24) \_\_\_\_\_ (1975). Sex and gender. *Voll II : The Transsexual Experiment*. New York. Aronson.
- 25) Whitley, B.E.(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765-778.
- 26) Yager, G.G. & Baker, S.(1979). Thoughts on androgyny for the coynseling psychologist.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Amerocan Psycholigival Association(87th, New York, NT. September).